



인쇄용지 가격 급등

계속되는 가격인상에 인쇄출판계 '초비상'

인쇄용지를 포함한 종이가격이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일부업체에서 7%의 비교적 높은 인상이 이뤄졌다. 또 5~6월에도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쇄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여의치 않아 인쇄업체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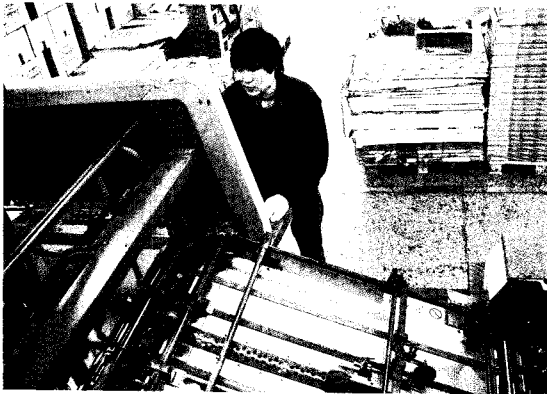
제지업계 관계자들은 국제펄프가격의 급등과 수급불균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 것이며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제지업체에서는 제지가격의 급등에 따라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지 몰라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는 등 제지업계의 입장에서도 펄프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쇄용지가격 인상이 오히려 달갑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칠레 지진·지방선거 앞뒹 품귀 현상

이처럼 인쇄용지 도매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먼저 국제 펄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데 따른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한솔제지, 무림, 한국제지 등 국내 제지업체들이 펄프가격의 인상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출고가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도매상과 출판사들이 백상지 등 미리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구매에 나서는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출판업체에서는 필요한 용지를 제때 구하지 못해 작업이

지연되는 등 인쇄용지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잇따라 출고가가격이 인상된 아트지와 백상지 등의 도매가격은 지난 3~4월에 7% 오른 데 이어 5월에도 1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수요측면에서 가격인상을 이끌고 있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류 유통업체의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나 인쇄사 출판사 등에 판매될 도매가격도 출고가 인상분이 바로 반영될 전망이다라며 과거에는 인쇄용지 공장 출고가가격이 도매가격에 반영되려면 1개월 이상 걸렸지만 요즘에는 펄프 수출국인 칠레 지진 등의 여파로 제지 물량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고가 상승분이 곧바로 도매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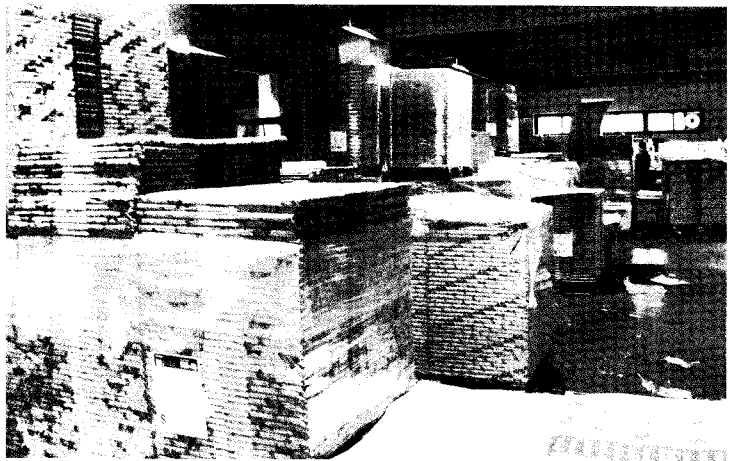
만일 5월에도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격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인쇄용지 중 하나인 백상지와 아트지 가격이 불과 2개월 사이 20%가량 오르게 되어 인쇄업계의 재산성 악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인상은 지난해 상반기 최저 470달러를 기록했던 국제 펄프가격이 지난해 연말 700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40달러를 넘어서는 등 50% 이상 급등한데 따른 것이어서 제지업계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대의 펄프 수입국인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최저 수준을 보일 정도로 펄프 재고가 줄어든 국제 제지업계에 수요면에서 강한 압박을 가했으며 여기에 지난 2월말 전 세계 펄프의 15%정도를 공급하는 칠레에서 강진이 발생, 펄프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비슷한 시기에 펄프의 주요 수출국인 핀란드의 항만 파업까지 벌어져 국제 펄프시장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극심한 수급 불균형에 처했으며 이는 국내 제지업체들의 조업차질 및 인쇄용지 가격의 잇따른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올해 상승기조 유지, 내년이후 해소될 듯

국내 최대 제지업체인 한솔제지는 올 상반기 중 보름 가량 조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지업계에서는 5월까지 가격을 올린 뒤 올 가을까지는 추가적인 인상이 없을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인쇄업계에서는 국내 제지사들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국제 펄프의 수급상황에 따라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우려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로 백상지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캘린더 제작 등이 본격화되는 가을 성수기까지도 수요 초과 현상이 완화되거나 해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을 할인받기 어려운 영세 인쇄사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에 무림의 펄프-제지일관화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인쇄용지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칠레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도 올 하반기 이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기에 중국의 국제펄프 싹쓸이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급작스런 물량 끌어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상, 하반기 구분없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불안한 수급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이후의 수급전망과 가격전망은 더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는 벗어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는가 하는 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부른 예단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업계, 제지업계 동반자의식 가져야

인쇄용지는 대규모 소수의 공급업체와 소규모 다수의 수요업체가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에게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복잡한 유통구조와 들쭉날쭉한 할인을 등은 영세한 인쇄사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차피 인쇄사들은 종이를 사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지사에서 가격을 올리면 더 주어야하고 물량이 없다고 하면 기다려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당하기만 하면 아무래도 좋은 기분일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는 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죠”라는 인쇄인의 말처럼 이런 문제를 당장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게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뤄져온 관행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수요업체의 어려움과 관계없는 공급업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인만큼 인쇄업계와 제지업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제 펄프가 상승 및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